자기주도적인 리포트 쓰기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리포트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학생들이 제출하는 리포트를 보면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리포트의 내용도 허술한 경우가 많았던 기억이 있다. 이번 학기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하여 리포트 작성법을 꼭 익혀두고,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자.

첫째,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리포트 작성 방향을 결정한 후에 주제를 선정한다. 교수님이 요구하는 과제를 파악하기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야 한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침묵하고 있는 학우들도 과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앉아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둘째, 리포트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문헌자료를 수집한다. 리포트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출간된 전문서적이나 논문, 인터넷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서실에 가지 않고도 PC에서 논문검색이 가능하므로,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사이트로 들어가서 전자도서관을 클릭하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문헌검색에 관해서는 중앙도서관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꼭 익혀두는 것이 좋다.

셋째, 리포트의 개요(outline)를 구상하여 목차를 결정한다. 리포트는 소논문과 실험조사 보고서의 두 가지로 나뉜다. 소논문의 목차는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된다, 실험조사 보고서의 목차는 조사 및 실험목적으로 시작된다. 주제를 선정한 동기나 의도, 필요성, 연구 목적 및 의의도 언급해야 하고, 실험의 전개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이론적 배경은 자신의 실험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연구나 이론 및 원리들로 구성된다. 연구방법은 실험 및 조사방법으로 구성되며, 이때는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절차 등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연구결과및 논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연구에 대한 자신의 해석 및 논의로 구성된다.

넷째, 목차를 중심으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한다. 리포트 작성에 필요한 전공서적이나 논문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난 뒤에는 저자와 책의 이름을 쓰고,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카드에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섯째,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초고를 작성한다. 서론 부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 동기, 의도, 필요성, 연구 목적 및 의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의 전개 방향과 문제점 등도 언급한다.

여섯째, 리포트의 마지막 쪽에는 참고문헌을 적는다.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부분에 기재하며,

국내저서와 논문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국외 저서를 서술한다. 저자는 가, 나, 다, 라 순으로 정리하고, 외국저자는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다. 참고문헌을 적는 방법은 미국 심리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작성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출판지침서인 APA작성법을 참고하도록 한다.

일곱째, 리포트의 초고가 끝나면 반드시 다시 한 번 읽고 수정한다. 리포트가 완성된 후에는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거나, 잘못 쓰인 어법이나 오타 등은 반드시 수정한 후 제출한다. 친구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여 논문의 서론과 본론, 결론의 논리적인 흐름, 리포트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한글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좋다. 같은 전공이 아니더라도 학우의 글을 읽으면 자신의 글 솜씨가 향상되고 자신의 리포트 작성능력이 개발이 되니, 친구들이 요청하면 흔쾌히 읽고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도록 하자.

여덟째, 리포트의 표지를 만든다. 표지에는 제목을 쓰고, 과목명, 담당교수님의 이름, 제출날짜, 작성자의 학번, 학과, 이름을 적는다. 제목은 자신의 논문을 한마디로 축약하는 글이므로, 중앙에 크게 쓰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논지를 부제목으로 쓸 수도 있다. 리포트를 완성했다면 제출 기간을 꼭 지키도록 한다.

필자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처음 작성한 리포트에 대한 에피소드는 이렇다. 부전공으로 심리학을 수강한 후, 한국에서 배웠던 정신분석학자인 Freud와 Erikson의 이론을 책에 써있는 대로 여기저기서 퍼다가 A4 용지 15장으로 타이프로 작성해서 제출했다. 2주일 후에 연구실로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셨다. 그 찰나에는 '그럼 그렇지, 그거 한국서 배우고 온 주제예요, 그래서 골랐어요.'라고 내심 좋아했는데, 교수님은 "결론부분에 정신분석학이론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이, 남의 생각만 잔뜩 써 놓아 당신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으니, F입니다." 하셨다. 리포트를 쓸 때는 결론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이론은 책에 충분히 언급되어 있으니, 正과 反을 정리하고 이론에 대해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인 合을 결론 부분에 최소한 5장정도 서술해야 한다고 리포트 작성법을 친절히 가르쳐 주셨다.

지식창조사회로의 변화를 '제3의 물결'에서 예견한 Toffler는 지식의 속성은 재생산이 아니라, 창조적인 자기 생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지의 여신 데미테르가 풍요를 가져오는 계절,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리포트를 구입하거나 남의 글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자신의 창조적인 생각들을 리포트에 담는 知力을 개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변신해 보자.

-박성희(2008).「자기주도적인 리포트 쓰기」, 강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